



## 경북도,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완료

경상북도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원하는 등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등 16개 오염원 지역의 25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지점 및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에 대해 납(Pb), 카드뮴(Cd)을 포함한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및 토양산도(pH)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250개 대상지점 중 3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초과지점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의 1개 지점에서 구리(Cu)와 아연(Zn)이 표토에서 179.5mg/kg과 412.6mg/kg, 심토에서 161.8mg/kg과 321.1mg/kg으로 기준(150mg/kg, 300mg/kg)을 초과했고, 다른 1개 지점에서는 비소(As)가 표토에서 50.47mg/kg, 심토에서 43.87mg/kg으로 기준(25mg/kg)을 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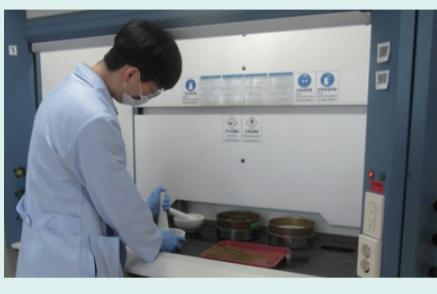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의 1개 지점에서 아연(Zn)이 332.3mg/kg으로 기준(300mg/kg)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중금속, 불소)와 40%(TPH)를 초과하는 지점은 29개 지점(아연(Zn) 3개 지점, 비소(As) 2개 지점, 납(Pb) 1개 지점, 불소(F) 2개 지점)으로 조사되어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토양오염실태조사에 추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해당 시군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된 토양을 정화 또는 복원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화성 경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매년 시행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오염된 토양을 찾아내 복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토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김동연, 경기북부 기업인 맞손토크 열고 "기업인 애로 해결할 플랫폼 만들자" 지시

### 11일 의정부 일자리재단에서 경기북부 기업인 등 100여 명 참석 맞손토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의정부시 경기도 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차오름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기업인 맞손토크'를 열었다.

맞손토크는 참석 기업인들이 경기북부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이에 대해 김 지사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포천 용정산업단지에 위치한 (주)한국미라클피플사의 이호경 대표는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 경기북부 대학생들은 경기남부나 서울로 가고 반대로 저희는 충청도에 있는 대학 쪽에서 인턴이나 실습생을 받고 있다"며 "경기북부에 있는 우수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특별자치도가 쉽게 말해 우리 고장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경기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질문에 나선 청년기업 대표

들도 있었다. 양주시 소재 캐릭터 개발 스타트업인 단풍의 강다은 대표는 "근로복지공단 청년 캐릭터 개발 등 용역 사업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캐릭터를 개발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서 "좋은 제품을 노인복지센터나 보육원에 납품을 하고 싶는데 판로개척에 대해서 고충을 받고 있다. 이런 쪽에서도 도움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화분제조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채움화분의 이재욱 대표는 승진이나 개업 때 보내는 화분에 달리는 리본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문자가 원하는 사진이나 문

구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커스텀 화분을 소개하면서 "아이디어 하나로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인들은 ▲디스플레이 산업 집중 지원 ▲고양꽃박람회 활성화 ▲판로개척 지원 ▲외국인 노동인력 수급 ▲중소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지원과 사업발굴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경제투자실장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위원장을 지목한 후 "경기도 기업인 누구나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경기도의 모든 부서와 공공기관들이 종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플랫폼은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문제를 못 푸는데 왜 못 푸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내가 얘기한 것에 답이라도 들었다는 속 시원함이라도 갖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해 기업인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함께 힘을 합쳐서 난관을 돌파하자"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또 "세계 경제를 쇼트트랙에 비유하면 현재 코너를 돌고 있다. 내 앞의 선수를 추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는 코너를 돌 때라고 한다. 이럴 때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경기도를

믿어주시고 힘내시기 바란다. 경기도가 힘든 상황을 뚫고 나가서 빨리 오는 새벽, 빨리 오는 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부대개발은 교통 기반시설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자원 개발로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내용을 담은 민선8기 경기도의 정책비전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북부대개발을 현실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비전·발전 전략 정책 연구용역과 인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속의공론조사, 시군 순회 설명회 등 100여 회에 걸쳐 꾸준히 도민과 소통했다. 아울러 북부대개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으며, 올해도 북부 발전에 4,854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올해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지향적 명칭을 공모할 계획이다. 또, 북부특별자치도 공동공약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민철·오영환 국회의원, 오석규·오준환 도의원,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경기북부 투자기업과 북부 벤처·청년·여성기업 등 경제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 전남도, 우주발사체 앵커기업 유치 잔결음

### 중기·대학·연구기관 등 잇단 간담회로 클러스터 추진 전략 논의

전남도가 고충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전남도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2031년까지 1조 6천8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민간발사장 등 핵심 기반 구축(2천23억 원),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385억 원)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후보지

로 선정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통과에도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우주발사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오는 16일과 2월 초 관련 중소기업과, 지역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참여 산·학·연과 함께 1차 기업 간담회를 지난 9일 서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주요 발사체 앵커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현대로템, 쉐코아에어로스페이스, 과학기술정책연구

원(STEP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전남대학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추진전략 마련과 핵심장비 및 설비구축, 클러스터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과 중앙·지방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제안했다.

기업 측에선 발사체 연구개발(R&D) 연소시험을 위한 통합 연소시험장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요청하고, 발사체 핵심장비의 시험·평가 기반 구축, 스타트업 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재용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우주발사체 특구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최우선적으로 발사체 통합 연소 시험시설을 2025년 국고에

반영해 민간 발사체 기업이 자유롭게 발사체 연소시험과 발사를 하도록 관련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STAY영덕

고려 태조왕건부터 이어져온 대게의 본고장 '영덕'

천년의 맛! 영덕대게

# 경북도의회 이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참석

경북도의회 이철구 운영위원장이 1월 4일(목) 울산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철구) 제10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정기회에는 신년을 맞이하고 첫 정기회로, 이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대표인 시·도 운영위원장들의 역할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선언없이 들을 수 있는 포용적인 협의회를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중부권 거점 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각 건의안들은 ①제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및 유인책 강구, ②지방의료원 경영악화 해소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정상화, ③늘어나는 공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용활주로 증설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들이라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는 민생안정에서 온다는 협의회 회원들의 강한 신념을 볼 수 있다.

이철구 협의회장은 “새해 첫 정기



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조성을 위해 위원장님들께서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제안한 안건들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중앙정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 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관리천 공공수역 오염사고 현장 방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화성시 소재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로 오염수가 유입된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오염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과 김순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최선자 위원, 유승영 의장, 강정구·류정화 의원,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염수 유출 상황과 확산 범위를 확인하고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방제 등 상황 점검을 위

해 마련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방제 작업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승겸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오염 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하게 됐다”며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을 계속하여 주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오산시의회, 기관 방문 신년 간담회 개최 ‘연초부터 민생 챙기기 행보 나서.....’

오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오산상공회의소,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신년 간담회를 갖고 건의 사항을 듣는 등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 나갔다.

오산시의회에서는 성길용 의장을 비롯해 이상복,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에서는 단체인장과 임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진행된 오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는 ▲ 관내 자격증 검정시험장 개설 추진현황 ▲ 기업 내 위반건축물 해결방안 ▲ 세교 3지구 내 입주기업 대체부지 마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어진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에서는 ▲ 신규 개설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비 지원 ▲ 노인의 날 및 회장단회의 비용 지원 등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 원동 상

점가 문화관광형 육성 공모사업 ▲ 주거단지 중심 공연행사를 상권 중심으로 장소 변경 건의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성길용 의장은 “올해의 화두는 무엇보다 경제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의원들과 상의하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정태숙 의원, '2023 최우수의원대상' 수상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정명 의원대상 시상식'에서 (사)한국유권자중앙회로부터 '2023 최우수의원대상'을 수상했다.

정명 의원대상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밝은 세상을 위해 가장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등이 선정 대상이다.

이날 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태숙 의원은 시정질문, 5분 발언

을 통해 국제금융혁신도시, 황령산 둘레길, 의료취약계층 지원 관련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국제교육협력 활성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등 교육 현안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태숙 의원은 “평소 활발한 현장 활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며 “부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 활동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 울산광역시 보육정책 간담회 개최

## 2024년 6월 중앙정부 일원화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의 일원화 업무가 시작될 예정

12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은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보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공무원 등 8명이 참석하여 유보통합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2월 8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4년 6월까지 영유아교육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일원화가 시작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유보통합모델을 도출하여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울산교육청에서는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천미경 의원은 “유보통합의 과정을 먼저 거쳤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통합의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들이 도출된 바 있다”

고 전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갈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며, 유보통합의 추진방향이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황규진/기자

#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중이 없는 의회운영'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용인특례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중이 없는 의회운영” 실현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 등 청사 내

부를 둘러보고, 오후에는 경기도의회를 살펴 보면서 전자회의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특징에 대해 의회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본회의장 의원석에 설치된 단말기를 직접 시연해 보고 전자출결, 전자투표, 전자시나리오서비스와 의안검색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초기 설치비용과 활용 효율성, 유지보수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최종성 위원장은 “전자회의시스템은 회의자료의 전자화 및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회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고, 종이 사용량을 절감하여 행정적 손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회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선진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새해 첫 행보로 가스 및 지진 예방점검 실시”

##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대응 관내 LPG 벌크로리 충전소 예방점검

새해 첫날, 강원 평창군의 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와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 발생으로 서울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가 지난 11일 비회기 중 갑작스러운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서울 관내 LPG 벌크로리 충전소와 내진보강이 추진되고 있는 마포대교를 방문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먼저,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LPG 벌크로리 충전소를 방문하여 각종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충전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자 및 가스운반자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내진설계가 적용됐으나 2018년 1월 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내진보강을 추진 중인 마포대교를 방문하여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 계획 상황을 보고 받고, 기 편성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재단

관리기금을 투입해서라도 내진성능이 부족한 교량들에 대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것과, 서울시가 약속한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2,465개소 내진을 100% 달성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가스폭발 사고나 지진재해 등은 그 피해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상시 예방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회는 갑작스러운 새해 시민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각종 재난 예



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온 힘을 기울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형재(강남2), 이상욱(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 의정부시의회 최정희의장,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은 1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신년인사회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의정부시장, 주요 유관기관 단체인장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사, 기념택 커팅, 교류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최정희 의장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시는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갑진년에는 지역 상공업계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이번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은 의정부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 임성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케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김경희 이천시장 '민생 최우선시하며 건전재정 운영 하겠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극히 겸손한 덕을 이용해 어떠한 험난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용섭대천(用涉大川)'을 이천시 신년 화두로 정하고 "재정보릿고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용섭대천 뜻 새기며 재정보릿고개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경쟁력 강화' 목표로 비전발표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 반도체 테마거리 조성

기업을 확보하고, 기존 중소기업에는 기술혁신 지원과 함께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여준다.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발행규모를 1,050억 원을 목표로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특례보증 이차차액 지원, 경영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육성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반도체·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더욱 높여준다. 미래도시체험관, 반도체연구단지의 입지와 개발방식을 구체화하고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한편,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이천시가 염원하는 반도체파크의 불통을 키워 나갈 것이다.

반도체산업의 성패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적기 확보다. 반도체인재양성센터 구축,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반도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SK하이닉스 일대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반도체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기업협의체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반도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겠다.

**질문3**  
이천시 최초의 여성시장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에 힘을 쏟았는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가꿀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아의료계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이천시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야간진료를 시작했다. 또한 장호원 웰리아병원에서는 남부권 야간진료를 시행했고, 장애아동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이천병원에 소아재활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지속 시행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언제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식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 준비물은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선 내년엔 시범적으로 2개교의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준비물 학부모가 아니라 학교에서 준비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가 좋은 경우 향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안흥동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마장면 청소년문화센터, 영유아수영장을 갖춘 어린이드림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준다.

**질문4**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천의 곳곳을 막힘없이 흐르는 교통은 도시의 미래이다.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교통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지만 광주-이천-장호원을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를 개통하고,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의 문을 열어 남부권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지난해 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톡 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도 수요응답형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첨단신호 체계 운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도심지 주차불편 개선을 위해 중포 3지구, 중리천로, 부발아미권, 관고동 등에 중포 3지구(306면), 중리천로(393면), 부발아미권(180면), 관고동(200면)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이천IC와 부발하이패스IC,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시계획도로, 시도와 놓여진 도로 등 82개의 간선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질문5**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명품복지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주민들께서 불편을 지적하신 건의사항은 빠르게 추진하여 개선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공공형 단기근로뿐만 아니라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통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 시민의 생명에 위협에 처한 순간 의사가 동반 출동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펼치도록 하고,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의료취약 지역인 농촌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주치의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복지분야 현안사업인 남부권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절차적 문제로 중단된 이천시립화장장은 정도를 지켜 더욱 완벽하게 그리고 빠른시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6**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 사람중심 녹색도시 구현은?

이천의 문화는 특별하다. 이천의 자량이자 자원인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가고, 대를 이어갈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예술 진흥의 토대를 쌓아 가겠다.

각종 음악회와 예술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이천아트홀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비롯한 기획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준다.

이천시 걷기좋은 길은 친환경 관광자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고 성호호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이천시예술인회관은 도비 55억 원을 확보하여 탄력을 받은 만큼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

사람중심의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준다.이천시환경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오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함께 수소버스 구매지원, 3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

집 밖을 나서면 숲이 있고 공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임 초부터 노력해 왔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락근린공원을 비롯해 설봉공원 보행환경 개선, 복하천 수변공원을 우선 완공하고, 순차적으로 생활근거지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또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북부권, 중포동, 부발읍 체육공원 등 시민의 건강과 화합의 장이 될 체육인프라 시설도 차질없이 건립해 나갈 것이다.

**질문7**  
2024년 새해,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올해 SK하이닉스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은 재정부담을 한층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역대 가장 낮은 증가폭의 예산을 편성하며 사회기반시설·도로 건설 등 이천을 변화시킬 민선8기 주요사업들도 원치 않는 숨고르기를 해야만 하는 뼈아픈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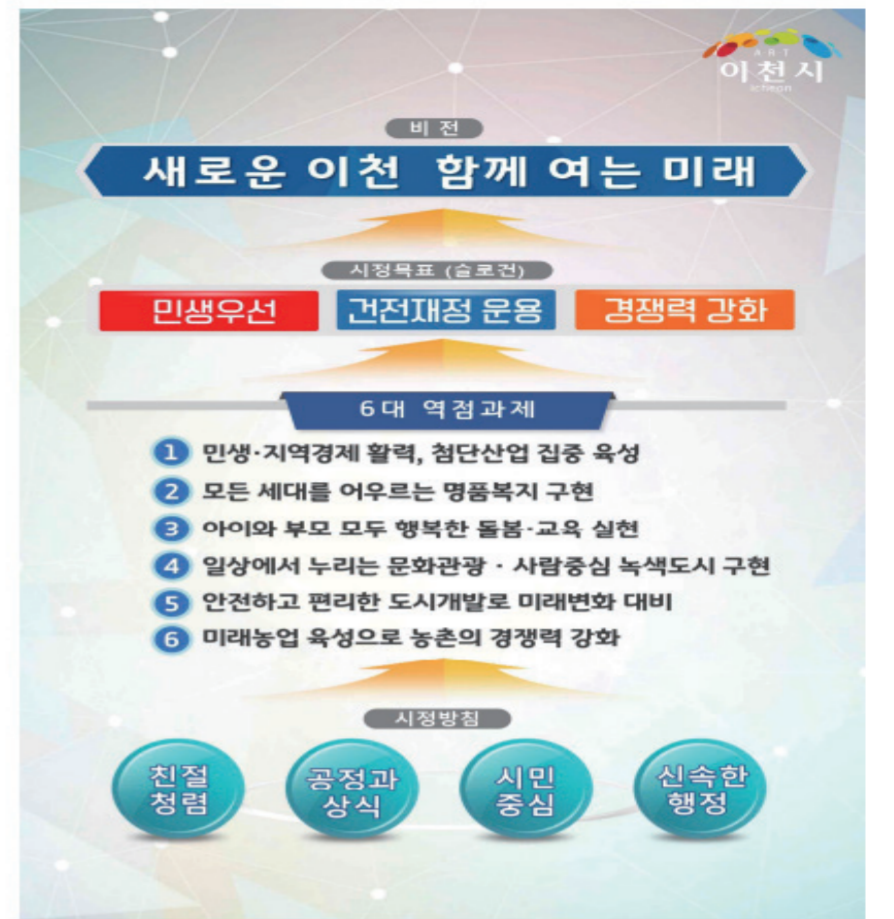
그러나 위기는 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신년 화두를 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는 뜻인 용섭대천(用涉大川)으로 정했다.

지혜와 용기로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었던 이천시민의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해 나갈 것이다.

위기에 맞서 주저하지 않고, 더 강한 결의로 이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한계를 극복하고 높이 도약하는 빛나는 여정이 될 것이다.

김범상/기자

## 2024년도 시정목표 및 역점과제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김일중 의원 콩 생산 농가와 콩 재배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건설교통위, 이천시2)과 김일중 의원(교육행정위, 이천시1)은 12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와 만나 콩 재배 활성화 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참석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30명의 참여농가로 구성되어 쌀, 콩을 주로 생산하며 2023년 96톤의 콩 정부 구매실적과 영농조합법인 주요 현황을 소개했다.

다른 참석자는 “정부의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논콩 재배 활성화는 필요하나 수확후 관리·선별 시설 부족, 판로 부족으로 논콩 전환 유도에는 어려움이 있

다.”고 말하며 “농가 소득 안정과 정부 구매 대형 사업 확대를 위해 선별장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원 의원, 김일중 의원은 “수도작을 논콩으로 재배하면 쌀 생산량이 감축되어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논콩 농가 소득 안정과 지원을 위해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 주인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올곡교육연수원, 현충원 참배로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첫 행보

11일, 공직 가치와 국가관 함양 자리 마련



경기도올곡교육연수원이 11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연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는 연수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를 지향하고 국가관을 함양하는 의미를 새기는 첫 행보의 자리로 진행됐다.

연수원은 지난 2일부터 상반기 '6급 미래인재 성장 과정 연수'를 시작하고 하반기까지 연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과정은 ▲창비교육연수원 협업 인문학 전문 과정 ▲잡크래프팅 ▲구글 교육전문가 과정 연계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업무 경감 과정 ▲융복합적 직무 심화 테마 과정 등 연수자들이 현장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종이 없는' 연수 운영을 통해 친환경 활동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직접 실천할 예정이다.

왕태환 경기도올곡교육연수원장은 “연수생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조직의 리더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 실시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선 시·군 사무국장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밝히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간 소통과 발전을 위해 시·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시·군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밝히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별로 차이가 있는 회계, 예산 등 규정의 통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이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스포츠클럽 등 장애인 스포츠포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 김홍수 회장을 비롯하여 정명옥 수석부회장, 권영천 부회장, 정수동 부회장, 김세환 부회장, 한현구 부회장, 조은영 부회장, 김선천 홍보이사, 이소영 홍보이사, 김석광 홍보이사, 남궁웅 체육진흥과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병행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에 착수 청렴도 제고 2024년 최우선 과제...제도 곳곳 손질 추진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엄중현 의장은 10일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이 참여한 정담회 및 의회 사무처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

엄 의장은 이번 정담회와 대책 회의에서 “경기도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이라는 초유의 평가를 받아

1,400만 경기도민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평가 결과는 아프지만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의 기회로 삼아 새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통한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내부 제도 곳곳을 손질하고,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공무원의 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출장 성과가 실제 의정과 도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부패행위, 청렴 대책 등에 대한 감사·평가·자문 역할을 수행할 '청렴 옴부즈만' 도입도 검토한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나서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2월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국내 여비 부정 수령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도 기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강화한다. 이는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

기도 하다.

아울러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원 대상 청렴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한 차례만 운영하던 교육을 4차례 확대 운영하고, 의원 청렴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엄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엄 의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고, 그 신뢰의 바탕은 '청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도민들의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꾸고, 부

끄럽지 않은 의회상을 일구는 길에 마음을 모아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김범상/기자



###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담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 경북수출기업협회, 수출확대 전략 세미나 개최

신년회 및 수출 세미나에 기업인 등 150여 명 참석  
(주)아누리 등 5개사 협회 발전 기여 공로 도지사 표창  
수출 확대 의지 다지고, 수출증대를 통한 지방시대 일자리 선도

경상북도는 지난 10일,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경북도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곤 회장은 “그동안 함께한 회장단 및 임원들과 항상 응원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초창기 50여 개사에서 1,000여 개사로 확대된 수출기업협회 회원사들의 내실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무국 기능을 보강하여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경북수출기업협회는 그동안 수출기업 3,0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수출증

합정보를 제공하였고, 향후 회원사를 1,200개사로 확대해 명실상부한 도내 최대 수출기업협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종합수출컨설팅 지원체계를 새롭게 기획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초보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시장개척 및 맞춤형 바이어 발굴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해 지역별, 품목별 순회 컨설팅도 실시하고 국내·외 통상전문가 및 수출수시기업 임직원을 활용한 개별기업 컨설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 소재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력, 디지털 수출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동시에 수출지원정책 합동설명회 개최,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공유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월례회, 분기·반기별 회의/교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 주요 수출마켓사업들을 상시 점검하고,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 자리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해외시장 확대와 회원사 간 상호협력을 통해 협회발전에도 기여한 (주)아누리 김민선 대표이사, (주)한국아그리넷 도민규 대표이사, (주)원케이 김태원 대표이사, 상원텍스타일 류기자 대표, 송죽클럽(주) 정선희 대표이사에게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였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증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2024년에는 수출마케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기업하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청룡의 기운을 받아 기업 성장과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의 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제1회 영남 공공 겨울축제’에 3천여명 인파 몰려

영양군은 겨울철 지역경기활성화와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영남영양군 겨울축제의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기여하기 위해 ‘제1회 영남 공공 겨울축제’를 준비했다. 제1회 영남 공공 겨울축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6일간,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에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체육회가 주관해 열리고 있다. 이번 영남 공공 겨울 축제의 주요내용은 ▲스케이트장 및 얼음썰매장, 얼음열차 운영,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장 및 낚시터, 빙어 체험장, 기타 ▲부대행사로 마술쇼, 페이스페인팅, 목공예체험, 등의 행사로 열린다. 이에 본지는 지난 13일(토), 공공 겨울축제가 열리고 있는 축제장을 찾았다. 이날 이곳 축제장에는 몰려든 남녀노소 구분없이 약 3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제1회 영남 공공 겨울축제가 앞으로 더욱 더 멋진 축제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1회 영남 공공 겨울축제!’ 처음 열리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은 물론, 서울, 대전, 부산, 포항, 청송, 대구, 안동, 등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족들과 함께 맘껏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곳 영양군에도 이번의 공공 겨울축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아 내년에는 보다 더 확대된 축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버스에서 쓰러진 20대 살린 버스기사 광동신 씨에게 감사패 수여

박형준 부산시장, “생명이 위급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발 빠른 대응으로 부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신 광동신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해



부산시는 지난 12일, 시청 의전실에서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박형준 부산 시장이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20대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창성여

객 583번 버스기사 광동신 씨에게 직접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서면교차로를 달리던 창성여객 583번 시내버스에서 20대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583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 광동신 씨는 ‘사람이 쓰러졌다’고 외치는 승객들을 소리를 듣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구역에 버스를 정차한 후 인근에 있던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다음,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광 씨의 노력으로 쓰러진 승객은 2분 뒤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고, 승객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광동신 씨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승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광 씨는 1990년부터 30여 년간 버스를 운전해 온 베테랑 기사로, 평소 사전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 광동신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사전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활용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생명이 위급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발 빠른 대응으로 부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신 광동신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응급상황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주위 이웃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응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대구농업기술센터, 유기농업기능사 야간과정 운영

농업자격증과정(유기농업기능사) 교육생 모집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농업자격증 ‘유기농업기능사’ 과정을 야간에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2024년 농업자격증과정(유기농업기능사)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오는 2월 ~ 5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자격시험 맞춤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업을 전공한 대구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과목별 전문강사가 돼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1월 26일(금)까지이며,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공모·모집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은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야간과정 교육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오명숙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민들이 농업과 기후변화, 생태환경, 식물이 주는 정서적 가치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대구농업기술센터는 시민들의 원하는 다양한 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연중 운영하겠다”며,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농업 자격증 과정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손광락한의원, 연이은 이웃사랑 실천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 기탁

손광락한의원은 지난 11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경주시 동부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손광락 원장(경주3호 아너소사이어티)은 1991년 한의원 개업 이후 ‘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및 후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4년부터 매년 1000만원의 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손광락 원장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돈인데 당연히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의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역민을 위한 마음으로 나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경주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희망2024 나눔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윤태용/기자

# 청송군, 주민숙원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 합동설계반 운영 등 발빠른 군정 행보로 호평이 이어져  
윤경희 청송군수,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부실시공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혀



청송군은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체 합동설계반을 편성에 운영하는 등 타시군보다 빠른 행보를 보이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청송군은 건설새마을과장 총괄하에 새마을팀 3명, 읍·면 실직직 공무원 8명 등 총 12명으로 합동설계반을 구성하여 2월 16일까지 6주간 운영할 예정이며, 3월 내 조기 발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기발주 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은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세천 정비 등 총 161건, 60억 6천만원에 이르는 규모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며, 침체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청송군은 자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면서 읍·면 실직직 공무원의 기술정보 습득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공사 추진 시 견실 시공을 통한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현장조사와 측량 작업 단계부터 마을이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특히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부실시공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2024~2025 경북도 지정축제 14개 선정

### 청송사과축제, 봉화은어축제 최우수 축제 선정 구미 라면축제, 영천 보현산별빛축제 등 6개 우수축제 선정 2년간 경북도 대표브랜드 보유, 콘텐츠 개발,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지원

경북도는 지난 10일 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2025년 2년간 경상북도를 대표할 지정축제 14개(최우수 축제 2, 우수 축제 6, 유망 축제 6)를 선정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최우수 축제에는 ▲봉화은어축제(7.27~8.4.) ▲청송사과축제(10.30~11.3.)가 선정됐다. 우수 축제로는 ▲구미 라면축제(11월 중) ▲영천 보현산별빛축제(10월 중) ▲영덕 대게축제(2.29~3.3.) ▲영양 산나물축제(5.9~5.12.) ▲성주 참외&생명문화축제(5.16~5.19.) ▲울릉 오징어축제(8월 중)가 각각 선정됐다.

이외 유망 축제로는 ▲경주 벚꽃축제(3월 말)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5.3~5.5.) ▲의성 슈퍼푸드마늘축제(11월 초)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축제(9.15~9.17.) ▲청도 반시축제(10월 중) ▲울진 죽변항산물축제(12월 중)가 뒤를 이었다. 도 지정 축제에 대해서는 2025년까

지 2년간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축제 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축제별로 최우수 축제 9천 5백만원, 우수 축제 5천 5백만원, 유망 축제 2천만원의 도비(총 6억 4천만원)가 매년 지원된다.

경북도는 지정축제 외에도 작지만,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미소(微笑)축제를 함께 선정했다.

미소축제에는 ▲김천 김밥축제 ▲구미 도시술 힐링페스타 ▲칠곡 꿀맥페스타 ▲영주 무섬외나무다리축제 등 9개의 축제가 선정됐으며,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개최하는 소규모 지역축제에도 도비 1천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경북 도내 22개 시군에서는 지역별로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85개의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 가운데 ▲포항 국제불빛축제(5.31~6.2) ▲고령대가야체험축제(3.31~4.2.)는 지난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27~10.6.) ▲문경 찻사발축제(4.27~5.6.) ▲영주풍기인삼축제(10월 중)는 명예문화관광축제로서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지역축제 지원조례에 따라 그동안 매년 선정하는 도 지정축제 주기를 변경하여 올

해부터는 2년마다 우수한 축제를 경상북도 지정축제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매년 심사에 대응하는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축제 개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축제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이라며, "경북의 축제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고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축제를 통해 경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덕군, 음식물 감량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영덕군은 올해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감소시키고, 수집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누출과 악취 등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피해를 해소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의무 감량 사업체를 제외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5개소로, 사업 개시 2년 이상에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방 공간 확보 및 위생 상태가 적합한 업소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군은 3월 말까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음식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54-730-6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음식물 감량기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통이 외부로 노출돼 발생하는 악취와 미관을 개선하는 등 외식환경을 선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경산시청, 경산 북부동 쓰레기 배출 홍보 캠페인 펼쳐

### "쓰레기, 내 집 앞에 배출하세요" 경산 북부동 전역서 홍보 캠페인

경산시 북부동 통장협의회와 안전협의체 위원들은 북부동 전역에서 생활 쓰레기 문전수거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산시 북부동은 지난 10일, 시청 자원순환과와 북부동 통장협의회, 안전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부동 전역에서 생활 쓰레기 문전수거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지난 1일부터 북부동 전역에 시범 운영된 '생활 쓰레기 문전수거'를 북부동 오렌지거리 일대 원룸촌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마트, 편의점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고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홍보했다.

문체화 북부동장은 "지난 1일부로 북부동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 문전수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심 갖고 홍보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문전수거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북부동은 향후, 전입신고, 체류지변 경건이 많은 2월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생활 쓰레기 문전수거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 '알찬 새해계획과 함께 모두 부자되세요!' 봉화군, 읍면 순회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진행

봉화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인들의 새해농업계획수립을 위한 현장감 있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8일 봉성면에서 시작된 이번 교육은 관내 10개 읍면을 순회해 31일 석포면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지역특화 품목인 벼, 고추, 사과, 수박 4개 품목의 기술교육과 2024년 농업기술센터 농정홍보 소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당면 영농현장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교육, 작목별 병해충 대응방법 교육 등 최근 변화된 농촌의 여건에 대처할 경영혁신 교육과 농촌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농업인분들이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함께 영농계획을 알차게 준비해 풍년이 가득한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내일을 위한 배움을 응원합니다!' 2024년 「울진군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사업 시행



울진군은 취업을 제고와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진군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울진군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사업'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부재로 인한 훈련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비(교육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울진군에 주민등록된 19세 ~ 65세로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이다.

한편,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카드로, 고용노동부 인정 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본인 부담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청(일자리경제과) 방문, 우편, 온라인(청년e플랫폼: http://gbyouth.c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 다음달 10일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장문화/기자



김진열 군위군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군위군-한전MCS(주) 군위지점, 업무 협약식 개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김진열 군위군수,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는 계기 될 것 기대, 모두가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군위군과 한전MCS(주) 군위지점은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등 총출동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전MCS 소속 전기검침원 7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 구미시, '스타트업 육성' 추진,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 이 사업 추진시 기술혁신은 물론, 인구증가에도 크기 기여할 것으로 예견돼

경북 구미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지난 12일, '구미형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유치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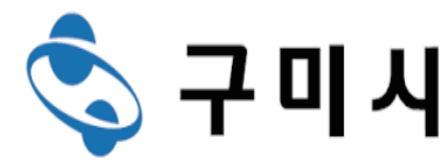
이 스타트업 육성 추진사업은 상용화 전 단계 연구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구미시의 독립적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기업 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운영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전국에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해 구미기업 119개, 구미이전 예정기업 187개 등 306개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구미시가 추진하는 이 스타트업 육성 추진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을시는 구미 분사 이전과 소속 근로자(대표자 포함) 중 70% 이상이 구미로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기술혁신은 물론, 구미시 인구증가에도 크기 기여할 것으로 예견된다.

김동현/기자







# 경북도, 설맞이 중소기업에 1,200억원 통 크게 쓴다~!

###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우대 5억원), 대출이자 이차보전 1년간 2% 혜택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3고(금리.물가.환율)시대 인건비 상승,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1월 15일부터 26일까지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시스템

(www.gfund.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추천 결과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1월 17일부터 기업과 시군에 통보될 예정이며,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설 연휴 전인 2월 2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14개사\*)을 통해 융자대출 시 27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분야별정보/경제/중소기업지원정보)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시스템(www.gfund.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주시 청년농 스마트팜 현장 방문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들과의 소통의 시간 가져  
강영석 상주시장,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우수한 교육과정으로 양성된 젊은 농부들의 성공적 정착 유도 중요, 농업·농촌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상주시 청년농 스마트팜을 방문하여 청년농업인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팜 창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농들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남영숙 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강영석 상주시장,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2, 3기 수료생들이 참석하여 주요 농정현안과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송 장관이 방문한 스마트팜은 각종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이재배 온실로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해당 스마트팜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상주시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시찰하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과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지역 청년농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년농업인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현장을 방문한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젊은 농부들의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년농들이 농업·농촌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 방영

윤경희 청송군수, "송소고택 등 우수 관광자원들이 방송을 타, 군이 관광 도시로 급부상할 계기가 될 것", "12일부터 방영되는 <밤에 피는 꽃>에 많은 시청"부탁해



청송군이 제작지원한 MBC 금·토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 오는 12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토 밤 9시 50분에 방영 될 예정이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은 밤마다 이종생활하는 전설의 미담 제조기 여주 '조여화 분(이하늬)'과 실력 좋은 금위영 종사관 '박수호 분(이종원)'의 은밀한 공조, 진짜 제 모습을 만나기 위해 단단한 세상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두 사람의 로맨틱 코미디 사극이며 주요 배경이 되는 '좌상택'은 청송군의 문화재이자 대표 관광지인 '송소고택'에서 촬영되었다.

특히 이번 드라마 방영을 통해 국가

민속문화재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청송의 문화유산들이 재조명 되어 관광 명소로 급부상 되고, 드라마 에피소드를 통해 청송사과, 청송백자 등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특산물 홍보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송소고택과 후송당고택 등 청송의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만큼 우리 군이 관광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1월 12일부터 방영되는 <밤에 피는 꽃>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2024년 영양군 중학생 미국 해외어학연수 시행

오도창 영양군수,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기회는 물론 새로운 외국문화 체험으로 국제사회의 안목을 넓히길 기대하며, 어학연수단 선발인원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히

영양군은 지난 12일부터 2월 8일까지 겨울방학기간 동안 관내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 해외어학연수를 시행한다.

지난 2015년 영양군과 미국 투산 교육청과의 국제교류 협약(Tucson Korea Ambassador Program) 체결 후 올해 10회 차에 접어드는 미국 해외어학연수는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 다지중학교에서 정규수업을 통해 진행되며, 홈스테이를 통한 미국 현지 가정 문화 체험 및 UCLA 견학 등의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미국 투산시 어학연수는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어 능력을 길러 학생들의 역

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며, 매년 어학연수 시행 후 자체보완 및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한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6월에 투산시 학생들이 영양을 방문하는 교류 행사 때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이어오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기회는 물론 새로운 외국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사회의 안목까지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협약사항과 같이 어학연수단 선발인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주요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성공적 결실을 위한 추진전략 점검  
권기창 안동시장,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 1,500여 공직자 모두 '백절불굴 중력이산(百折不屈 衆力移山)'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 당부해

안동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4년도 신규 및 중요업무,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하였으며, 올 한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사업별 타당성과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실·과·소 각 부서장의 보고 체계에서 국·소, 직속기관, 원장이 보고함으로써 기존 실·과의 단위업무 나열형 보고 형식에서 탈피, 시정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 실현 중심의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명확한 정량적 지표를 설정하여 시민들에게 시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는 올해 ▲도청 소재지 사통팔달 교통 중심 도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도시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스포츠도시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동력을 갖춘 농업도시 ▲백세시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등 6대 역점과

제를 중심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및 중요사업으로는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 장려금 지원 ▲시민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물 산업화 추진사업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구축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방소멸극복 특화 정책 발굴 ▲중앙선 폐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청년창업·창작 일자리 지원 ▲대마산업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육아거점 은하수랜드 조성 ▲행복택시 대상자 확대 및 정착 등이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선 8기 안동시정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어 나가는 해인 만큼 주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안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1,500여 공직자 모두 '백절불굴 중력이산(百折不屈 衆力移山)'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김정구, 일하는 방식 대전환에 앞장선다 예산 및 취합RPA 직원 교육 추진

김재운 김정구청장,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구민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밝히

부산 김정구는 '예산 및 취합RPA(업무자동화) 직원 교육'을 오는 15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하여 구가 지난해 선도적으로 도입한 '예산 및 취합RPA(업무자동화)'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구는 지난해 5월 예산편성 오류 검증, 사업설명서 작성 등을 자동화하는 '예산 RPA'와 지난해 12월 한글, 엑셀, PPT, PDF, 이미지파일 등 각종 파일을 설정된 순서에 따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는 '취합 RPA'를 자체 제작하여 시범 도입 한 바 있다.

특히, '예산 RPA'는 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 연속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2023년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활용 우수사례' ▲부산광역시 '2023년 정부혁신 경진대회' 우수 ▲행정안전부 '2023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설명회 우수사례' 등에 선정·소개된 바 있다.

구는 이번 교육을 예산업무와 취합업무의 비중이 높은 서무(회계) 담당자, 신규직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조직 전반에 RPA 사용을 확산해 구의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운 김정구청장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구민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통해 절감된 업무시간을 구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에 재투자해 구민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정구는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 전남도, 이달의 친환경농산물에 광양 '유기농 셀러리'

영양 풍부·칼로리 마이너스·독특한 향과 아삭한 식감 매력

전라남도는 섬진강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광양 유기농 셀러리'를 올해 첫 1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셀러리(Celery)'는 수분과 비타민이 매우 풍부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서양 요리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로 열량이 100g당 12칼로리로 매우 낮아 다이어트에 제격이다.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어서 '마이너스 칼로리 푸드'로 알려졌다. 마이너스 칼로리 푸드는 섭취한 칼로리보다 소화 과정에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는 식품이다. 2013년 설립한 광양 진월면의 '디딤 친환경작목영농조합법인'(대표 박순성)은 최근 새해맞이와 함께 유기농 셀러리 수확이 한창이다. 이 법인은 셀러리뿐만 아니라 양상추,

양배추, 로메인상추, 브로콜리 등 다양한 채소를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다. 2022년에는 1만 9천800m<sup>2</sup>(약 6천 평)에서 180여 톤을 생산, 4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해 시설하우스 1만m<sup>2</sup>(1ha)를 추가로 신축했다.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광양 셀러리는 생산량 대부분을 생즙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일부는 생협 등에 전량 판매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농업인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타민A 함유량이 많아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친환경 셀러리는 광양시청 농업정책과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박종배/기자



# 강진에서 돈 쓴 김에 '내돈내산' 리뷰 어때?

SNS 작성하면 강진사랑상품권 월 최대 1만원

강진군이 관내 소상공인 업체 이용 후 SNS에 리뷰를 작성하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내돈내산 SNS'를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1,078명이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2,006건의 SNS 리뷰를 작성했다. 군은 강진사랑상품권페이백으로 1,026만원을 지급했다. 강진군 내 소상공인들의 외식업, 미용업, 가공품 등 다양한 업체를 이용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는 강진군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1만원 이상 물품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과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해 온라인 플랫폼 및 마케팅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우선 강진군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하면서 사진을 찍은 뒤 1만원 이상 영수증 수령, 영수증 및 구매

물품 개인 SNS 전체 공개 게시(필수 해시태그 게시: #강진 #강진내돈내산 #강진소상공인), 이벤트 신청구글 폼 순으로 참여하면 된다. 매월 최대 2회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트위터 등에 게시하면 된다. 군은 영수증 검증 검증 등 확인을 거쳐 참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페이백으로 5,000원을 지역사랑상품권착(chak) 모바일로 발송하고, 매월 베스트리뷰 5명을 선정해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프로젝트는 올해 1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맞아 강진군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인 관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홍보에 이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 나주시, 마한 역사 대표 중심지 도약... 역사문화권 선도사업 추진

나주 북암리고분권역,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 선정

고대 마한(馬韓) 역사의 산실인 나주 북암리고분군 권역이 역사문화 환경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500만 나주관광시대를 견인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도약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에 나주 북암리고분군 권역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도사업 선정을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나주 정촌고분, 잠애산성 등 비지정유적 및 주변부 통합정비 등 121억원 규모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은 지난 2020년 제정되고 2021년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 정비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화재청은 마한을 비롯해 고구려·백제·신라·가야·탐라·중원·예맥·후백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을 설정해 지난해 2월 선도사업을 전국 공모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한 유적·유물을 보유한 나주시는 8곳의 마한역사문화권을 도출해 전문가 자문·논의를 거쳐 다시면 북암리고분군 권역이 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보고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문화재청의 심사, 현장조사 결과 선도사업 대상지로 나주를 비롯한 4개 지역(나주, 강릉, 함안, 해남)이 최종 선정됐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북암리마한권역은 고대 마한부터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고대 문화유적거점으로 비지정문화유산인 정촌고분과 잠애산성이 위치해있으며 다시면, 영산강 등 자연유산이 하나로 연결된 역사문화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암리고분군 권역 선도사업은 '비지정 유적 및 주변부 통합정비', '유적 주변부 특화경관 조성', '역사문화 향유공간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2014년 현존하는 가장 완



벽한 형태의 금동신발이 출토된 '정촌고분'과 삼국시대 축조된 '잠애산성'을 거점으로 탐방로 개설, 성곽 복원, 진입로 개설 등 통합 정비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진입로에 대한 영산강 연결 녹지 및 역사탐방로 개설, 북암리고분군 경관 정비 등 유적 주변부 특화경관 조성과 더불어 다시면 마한유적 방문자센터, 마한 역사문화탐방체험촌, 정촌고분 탐방 쉼터, 잠애산 전망대 등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다. 나주 북암리고분군 역사문화권 선

도사업은 오는 3월 중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심의를 거친 후 기본·실시계획수립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역사문화권 선도사업 선정은 나주가 고대 마한 역사문화를 대표하고 계승하는 도시로 상징성을 갖게 된 것이다"며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차질없는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나주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 순천시, 달빛어린이병원 전남동부권 소아 의료공백 해소 기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조사결과 평일 야간 60명, 주말 352명 이용

순천시는 지난 12월 20일부터 진료 시작한 전남 제1호 순천달빛어린이병원이 전남 동부권 소아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부터 운영한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의 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평일 평균 60명, 주말 평균 325명의 소아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환자 분포가 순천 68.2%, 광양 14.2%, 여수 5.7%, 고흥 4.5%, 구례 2%, 보성 1.5%, 기타 3.9%로 순천뿐 아니라 전남 동부권 인근 시군에서도 다수의 소아 환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순천시민 박모씨는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에는 특히나 소아과가 많이 붐벼, 4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면서 주말에도 많이 안 기다리고 진료를 빠르게 볼 수 있었다"며, "달빛병원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고충을 덜어주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시민분들의 호응이 높음을 실감한다"며, "올해에는 순천형 소아 응급실 구축과 입산부·신생아 구급차 운영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시에 두 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준중/기자

# 남원시,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46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수확된 농산물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위해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의 위생

설비를 보완·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전북에서 총 5개소가 선정됐으며, 서면심사와 분야별 전문위원의 현장평가 등의 경쟁 끝에 남원시의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선정됐다. (최종 3개소 선정) 지리산농협은 "올해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으로 포도 선별장에 냉난

방기 개보수와 전등 보수를 진행해 수확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을 통해 포도 선별장의 냉난방기 및 전등 보수로 대한민국 대표 명품 남원 고랭지 포도를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추진현황 점검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전략 수립



2024년 갑진년 새해 시작과 함께 함평군이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추진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 11일 임만규 부군수 주재로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등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장정진 기획예산실장은 함평군을 3개 축(해양생태축, 산악 녹지축, 미래성장축)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별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간 균형 성장 등 조화로운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들을 중심으로 각 공간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확장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인 주포항 여촌신활력 증진사업(116억원), 공공수마장 조성사업(20억 원)이 최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첨단 신도시 조성사업, AI 축산 융복합 밸리조성사업,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사업들도 관련용역 착수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임만규 부군수는 "함평 미래발전 비전사업의 실현을 위해 600여 전 공직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라남도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관련 사업이 조속히 실현되고, 주축 비전사업을 기반으로 한 파생 사업들이 화수분처럼 더해져 함평 대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진/기자



# 2024 강원도 문화올림픽 전시 개막, “지구를 구하는 멋진 이야기들” 23일간의 대장정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올림픽 전시프로그램 ‘지구를 구하는 멋진 이야기들’이 1월 10일 오후 2시 평창(대관령농마을예식장)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2월 1일까지 (평창) 대관령드래이닝센터 및 (강릉) 경포해변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청소년을 주 관람층으로 두고, ‘생물다양성’, ‘기후 위기’, ‘지속 가능성’ 등 세부 주제를 토대로 우리가 사는 생태계의 중요성, 글로벌 이슈인 환경문제와 미래를 위한 그린 액티비티(Green Activity) 답론이 다루어진다.

국의 작가 5개국 5명, 국내 작가 21팀(45여 명)의 작품 총 28점을 만나 볼 수 있다.

평창 대관령드래이닝센터에서의 전시 “미래로 가는 디지털 강원”은 총

18개의 강원 지역을 아우르는 예술,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작품으로 선보인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관동팔경(關東八景)의 아름다운 경승지 속 다양한 문화유산을 상상의 풍경으로 구현한 이예승의 <증강 팔경>(2024), 강원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주제로 삼은 김기라의 <아리랑\_정선>(2023-2024)과 <비나이나비나이다\_강릉 관노가면극\_바람이 불고 지나간 듯>(2023-2024), 노진아의 강원특별자치도를 여행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가면이 <오로라>(2023), 강릉농악, 평창둔전농악, 동해당상농악 등을 재현하는 로그( )의 참여형 인터랙티브 작품<신명>(2023), ‘황병산 사냥놀이’에 등장하는 ‘서낭당’을 모티브로 한 배준형의 <헤리도이드: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문화재 요정이 구독자 수가 마땅치 않자,

차원 이동 게이트를 열기로 한 모양입니다.>(2023) 등 7팀(명) 작가의 디지털 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

강릉 경포해변에서 진행되는 바닷가 갤러리의 전시 “지구를 지키는 공생의 강원”에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생물다양성, 기후 변화 및 위기, 환경 문제 등을 다루는 다양한 야외 설치 작품이 전시된다.

총 19명(팀)으로 구성되는 본 전시는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 속에 포함된 여러 개체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명체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예술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강원 지역의 환경 및 문화를 포함한 지구 환경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고자 기획했다.

이번 문화올림픽 전시프로그램에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학교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함께 협력하는 공감의 강원”이 행사 전에 함께 진행되어 청소년과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전 지역 홍보와 참여를 높였다는 점이다.

“함께 협력하는 공감의 강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 작품을 선보인다.

시민과 일반인이 함께한 공공예술의 일환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최수영과 도마다마식당이 협력한 <플루리버스: 여러 세계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세상>(2024), 건축가 최이선과 미래건축가들이 함께한 <지구를 지키는 파빌리온>(2024), 그리고 허정원과 강

릉원주대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강원특별자치도 멸종위기의<삼나무말 프로젝트>(2024)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교환하는 오상훈 건축가와 문화지형연구소 씨티알의 ‘격정교환소’(2024)로 구성된다.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미래를 위한 그린 액티비티를 실천하는 참여 프로그램 “생각을 공유하는 미래의 강원”에서는 친환경, 재활용(recycling), 새활용(upcycling), 멸종위기, 생물다양성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강원문화유산인 ‘관동팔경’의 이미지를 재활용 컵에 그려봄으로써 작품의 일부를 완성하는 이예승의 <티룸\_팔경>과 경포해변의 주변을 탐험하며 자연의 소리를 수집해 나만의 음반을 제작해보는 강준섭의 <바다소리: 업사이클링 아날로그 음반 만들기>, 그리고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하여 멸종위기인 강원지역의 ‘남방노랑나비’를 만들어보는 스(昭)진(정민진×안운진)의 <플라스틱 섬을 구하는 이야기 (그럼에도 희망)>, 염원을 담은 북주머니를 한복 재료로 제작해보는 최선희의 <굿나잇 북주머니>,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멸종위기종인 ‘삼나무말’을 모래사장 위에서 스텐실 판화로 체험할 수 있는 허정원의 <삼나무말 스텐실 워크숍>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태백시,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1억9,500만 원 접수

태백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기부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금액이 총 1,182건 1억 9,476만 원이라고 밝혔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서울, 울산, 경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출향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부로 당초 목표액 1억 5천만 원 대비 5천만 원 이상 초과 접수되었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며,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한 운영으로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제31회 태백산 눈축제



유상근/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장영실과학관, 명실상부한 최고의 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하길”

###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전시물 새롭게 교체하고 재개관

아산시는 장영실과학관 내 2층 장영실관 전시물을 새롭게 교체하고 체험 위주의 과학시설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장영실과학관 내 2층 장영실관은 2011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 9월 전시물 교체 사업을 착수, 같은 해 12월에 완료했으며 이를 홍보하고자 9일 재개관했다.

그동안 장영실과학관은 전시물 노후화로 현대 과학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관람객 흥미 저하, 전시물 교체에 대한 민원과 불만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체험 위주의 과학시설을 새롭게 교체한 현재의 장영실과학관은 관람객의 호평과 함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장영실과학관을 방문하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 환경에서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물 개선을 추진했고, 이에 뜻깊은 재개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향후 장영실과학관 내 항공우주전시물 상설전시관을 추가로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농축산 탄소중립 선도 “농가소득 2억 실현”

##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전략 수립…2045년까지 12조 3000억 투입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도가 농축산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

2045년까지 12조 2855억 원을 투입해 저탄소 농업 생산 기반 등을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이고, 농가 소득은 가구 당 2억 원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도는 ‘2045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후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에 발맞춰 마련한 이번 전략은 스마트화 △농민 참여 △제도 지원 등을 통한 탄소중립 농업경제 선도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책 목표는 △2018년(387만 톤) 대비 2045년 온실가스 271만 톤(70%) 감축 △2045년 농가 당 소득 2억 원 △농업의 저탄소·친환경 산업화 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탄소중립 농업경제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탄소 농업 실행 역량 기반 구축 등이며, 총 투입 예산은 12조 2855억 원이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도는 우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스마트 대규모 농업 단지를 조성

한다.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 사례로 볼 때, 3ha 규모 스마트팜은 비료 26%와 물 18%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가스과 고체연료, 바이오차(biochar·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단지도 조성 추진한다.

저메탄사료 상용화 및 생산·공급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도 늘린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많은 온실 효과를 부르는 가스로서, 가축의 장내 발효 등으로 발생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노후 농기계는 고효율로 전환하거나 전기에너지 농기계로 바꿔 탄소 배출을 저감한다.

저탄소 친환경 농업도 확산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인다.

친환경 농업은 관행농업보다 온실가스를 25%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설원예 등의 경우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열회수형 환기 장치 등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설·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태양광·지열·공기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영농법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한다.

논물을 맡게 될 경우 상시 담수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63% 줄고, 중간 물떼기를 하면 25.2%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 논 물 자주 빼기와 논물 맡게 대기 등의 영농기술을 확대 보급한다.

농식품 유통거리 단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라인 유통 확산, 생산지 중심 유통·소비 체계 구축을 추진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 농업 분야 민간 협력 추진 체계 구축 △탄소중립 농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법구 제정 △저탄소 농축산물 인센티브 확대 등도 중점 추진한다.

연도별 투자 사업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8054억 원 △2026년~2030년 2조 2656억 원 △2031~2035년 2조 6303억 원 △2036~2040년 3조 493억 원 △2041~2045년 3조 5349억 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경지 면적은 21만 1518ha로 전국 149만 7025ha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가축 수는 한우우 46만 7459마리, 젖소 6만 7027마리, 돼지 227만 3307마리, 닭 2868만 2469마리 등이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탄소중립

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는 농축산 분야 역시 마찬가지”라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농축산 경제를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특히 “우리나라 국토의 40%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경우 농가 소득이 1억 원으로 도내 농가 소득의 2배가 넘고 있으며, 스마트팜 도입 시 농업 소득은 평균 32%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의 첨단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농업 기술과 환경을 최적화한다면, 2045년 농가 소득 2억 원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농축산 미래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충북도-수과원 수산양식 및 가공기술 개발 한뜻

## 유해 어종 업사이클링 사업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내수면 기반 조성

충북도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손잡고 내수면 수산양식 및 가공기술 개발 등에 뜻을 모았다.

충북도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2일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우동식 수과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 과제로는 유해어종 업사이클링을 통한 대체 사료 개발, 민물양식이 가능한 바닷고기 양식기술 개발 보급, 연어과 어류 인공종자 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내수면 수산물 2차 가공식품 및 간편 레시피 개발·보급 등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사업인 유해어종 업

사이클링은 수매된 외래어종을 활용하여 액체 비료를 생산·보급하고, 액비잔여 슬러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사료 원료(어분) 가공 및 제조 기술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한 점농어, 황복 등 민물양식이 가능한 바닷고기를 대상으로 순환여과시스템 적용 기술 개발 및 연어 인공종자 최적 사육 기술의 공동 연구로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도 해양수산생물을 생산·육성해 내수면어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북은 저수지 746개를 비롯하여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수산 분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수산 연구를 통한 정책지원 및 현장 기술 보급을 하고 있는 수과원과다 상생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충북수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발전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충북도,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추진

### 1. 15.~1. 26.까지 합동점검반 편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충청북도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해 귀성객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5일부터 1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방화문 개방 및 비상구, 피난계단 내 물건 적치 여부 ▲불법.무단 증설 여부 등이다.

매년 충청도와 시.군,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주요 대형마트, 영화관, 여객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며, 이중 5개 시설물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군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여부 ▲누전 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전기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가스용기 관리 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완강기 구비 여부

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민 모두가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추운 날씨에 전기, 가스, 유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도민 스스로가 안전 위험요소는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자체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 "철저한 화재 예방으로 시민 생명 보호" 강조

### 박 시장, 10일 '생생소통현장' 일환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 안전 점검 나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생생소통현장' 일환으로 관내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 안전 점검에 나서 관련 부서에 강력한 화재 예방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박 시장의 현장 점검은 서울 도봉구, 경기 군포시 등 전국에서 연일 잇달아 발생해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신속히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박평재 광명소방서장과 함께 하안동 공동주택단지 방문에 소화설비, 경보시설,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노후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여건을 살펴본 뒤, 입주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슬라브 형태 옥상층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상시 잠금상태로 관리하는 까닭에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에 따라 시는 화재 등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옥상 출입구를 개폐하는 장치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날부터 오는 2월 말까지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관내 25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시와 광명소방서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하며 각종 소방시설 상



태를 점검한다. 특히 온열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누전에 따른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광명시 전기안전협회와 함께 전기 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각 세대에 화재 예방 방송을 송출하고, 주민 행동 요령 계서물 등을 배부할 방침이다.

앞선 9일 오후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열린시민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9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행동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박 시장은 화재 안전 점검에 앞서 이날 오전 인근 광명제5R구역 공사

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광명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시민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들은 발파 등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으며, 시는 교육지원청, 시공사와 함께 교실 청소, 방음벽 추가 설치, 발파 시간 조정 등을 검토해 학생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공사와 관련해 학교, 학부모, 시공사, 조합, 경찰서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본적 민원 해결에는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논의 구조를 정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권동일/기자

# 고양특례시, 겨울철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일산, 벽제, 원능, 삼송 수질복원센터 4곳 안전 점검

고양특례시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11일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수질복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고양특례시에는 일산, 벽제, 원능, 삼송 4곳의 수질복원센터가 있으며 하루 평균 33만 톤의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장을 세밀하게 둘러보며 현장의 문제점 등을 점검했고, 현장관

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며 격려했다.

또한 현장직원들에게 안전장비 착용, 2인 1조 작업, 밀폐 공간 가스측정 등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수질복원센터 관리자들에게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시설점검을 통해 수질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뵙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전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 문자메세지 내 링크 클릭 시 가짜 사이트 연결돼,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유출 등 피해 우려

전주시가 관광서를 사칭해 발송된 폐기물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관광서를 사칭해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민원 내용" 관련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 내용 확인하기' 또는 '사전통지서'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링크에 접속할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관련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무심코 링크를 누르는 대신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구청 청소위생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김승일/기자

# 안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배치... "더 신속한 초동대응"

### 24시간 빈틈없는 재난 예방 및 초동대응 대비 체제 구축

안양시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확보해 24시간 운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간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야간·주말·공휴일에는 당직자를 배치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등 자연재해, 대형화재, 인파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빈틈없이 재난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관내 재난·안전 정보를 수집하며 상황 발생 시 관련 부서

에 상황을 전파하고,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유관기관(경찰·소방)과 재난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맡고 있다. 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도 상황을 보고한다.

시는 올해 신축 이전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해 향후 더욱 신속하게 도시 안전과 재난 예방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최재호 안양시장은 "최근 각종 사고가 크고 복잡해지고 있어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게 됐다"며 "경기도,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 더욱 강화된 공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대처해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산계곡, 침백공원, 촉백수림, 외씨바스길
- 영양의 역사: 을식디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박물관,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 경북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교육 급여 평균 11% 인상

## 초·중고 학생 교육복지 혜택 확대

경북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작년 대비 평균 11% 인상된 교육 급여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2024년 교육 급여 인상으로 연간 기준 초·중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6,000원 65,000원 73,000원이 오른 금액이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은 작년 20,260명(△초 8,469명 △중 5,477명 △고 5,865

명 △특수 449명)의 학생들에게 109억여 원의 교육 급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0,306명(△초 8,430명 △중 5,656명 △고 6,084명 △특수 136명)에게 129억여 원을 지원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급여 신청은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교육 급여 지원 단가의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2023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실적 최우수교 선정

## 포항흥해공고, 탄탄한 학생 생활교육의 결실 맺어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실적 최우수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포함한 총 3차례에 걸친 심사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도내 초·중·고 중 9개 교를 선정하였다. 이 평가에서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가 최우수교로 최종 선정되어 학생 생활교육 분야의 명문 학교로 인정 받았다.

포항흥해공업고는 교과 수업 뿐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친구와 함께하는 낙동강 자전거 길 여행', '친구와 함께하는 봉화 래프팅 체험', '글램핑 체험을 통한 힐링 캠프' 등의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화합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점이 돋보인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학교 폭력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

는 환경이 마련되어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최영호 교장은 "이번에 포항흥해공업고가 최우수교로 선정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생활교육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준/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 세계교육 표준 K-EDU 위해 광폭 행보

## 현지 교육부와 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관계부처 장관 면담 이어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024년을 세계교육 표준 K-EDU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해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경북교육청 방문단은 1일 차(현지 시각 9일) 일정으로 현지 한국대사관(에티오피아-AU대사 정장)을 방문해 양국 간의 외교관계 및 주년국 정세를 공유하는 등 교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다음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수도 아디스아바바 위치)을 방문해 참전용사들의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참전 기념비에 참배했다.

이후 참전용사 후회회 하옥선 지부장의 설명과 함께 한국전 당시 활약을 보여주는 사진과 전쟁 물품들이 전시된 전시관과 7천여 명에 달하는 참전 후손들을 교육하는 한글 교실도 둘러보았다.

이날 후회회 측은 참전용사 후손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합창단원들의 노래를 시작으로 한류열풍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아이돌 댄스와 공연으로 방문단을 열열히 환영해 주었다.

임 교육감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며, 한국전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일 차(현지 시각 10일) 일정으로

현지 교육부를 방문해 에티오피아의 초·중등학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기반 조성하고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베르하누 네가 장관을 비롯한 아예레체 에쉬트 일반교육 부문 장관 등 현지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경북교육 정책 홍보와 함께 본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향후 5년간 100명의 디지털 교육 선도 교원 양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하고, 양국 교원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우수 수업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경북의 에듀테크 노하우를 적극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임 교육감은 국립코테베교육대학교(총장 베하네메스켈 테나) 대강당에서 에티오피아의 미래인재를 책임질 예비 교원 25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에티오피아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종전 이후 보육원까지 설립해 전쟁고아들을 돌봐준 강부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했으며, 이제 한국이 은혜를 갚을 때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오늘에 전쟁 중에



도 멈추지 않은 교육의 힘이 바탕이 되었던 것처럼 청강 중인 예비 교원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과 함께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고 열띤 강연을 펼쳐 청강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연을 들은 브루크타이트 파울로스 학생은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생생한 증언에 감격했으며, 교육으로 변화되는 에티오피아를 상상하게 되었다"라며 예비 교원으로서 다짐을 새롭게 해준 준 임종식 교육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방문단은 이후(현지 시각 11일) 일정으로 KAIST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화제가 된 현지 최

연소 최장수 장관인 동시에 친선 한국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메쿠리아 테클레마리암 국무총리 자문 장관(한국 이름 지천영, 54세)을 면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켈란남자기속고등학교와 에테게메네여자기속중학교 등 두 개 학교 방문을 마지막으로 귀국길(현지 시각 12일)에 오른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나눔을 실천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선진국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교육 표준 K-EDU가 그 실천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수학아, 겨울을 부탁해' 안동수학체험센터, '겨울방학 수학체험캠프'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는 지난 9일(화)부터 12월(금)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친해지는 '겨울방학 수학 체험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프는 '코딩 관련 활동',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큐브아트', '전시체험물과 관련된 다양한 수학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체험수학으로 수학을 배우고 싶은 경북 북부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하였다.

이번 수학체험캠프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교구를사용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캠프에 참가한 박○○ 학생은 "작년 수

학축전때 큐브를 활용한 체험이 재미있어서 이번 캠프를 신청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미니큐브를 가지고 BTS를 만드는 활동이 제일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 윤석근 센터장은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 우리 일상생활 속에 수학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참여만만큼 즐겁고 뜻깊은 체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제동행 겨울방학캠프"는 다음주에 안동수학체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주)KBI국인산업 시명권 대표, 석적고등학교에 장학금 천만 원 기탁

##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선한 영향력 행사

(주)KBI국인산업 시명권 대표이사는 지난 11일(목), 갑진년 새해를 맞아 석적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KBI국인산업의 장학금 기부는 2013년부터 시작돼, 매년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그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받았듯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돕고자 마련한 자리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

는 학생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의 배경을 밝혔다.

석적고등학교 박병욱 교장은 "약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시명권 대표를 비롯하여,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 해주시는 지역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드린다. 지역민들의 소망이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각자의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동현/기자

#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경험해요! 새벗유치원, 역할놀이 체험 활동 실시



새벗유치원은 지난 11일(목), 3층 체육실에서 유아 117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탄생' 역할놀이 체험을 실시했다.

'가족의 탄생' 역할놀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맡아 다양한 상황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역할과 책임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가족의 탄생' 역할놀이는 결혼 예복을 입어보고 결혼식준에서 결혼식장 꾸미기, 신부대기실 놀이, 혼주, 주례놀이 등의 역할 놀이와 아기탄생의 존에서 아기 인형 돌봐주기 놀이, 돌잔치준에서 돌상 차리기와 돌잡이, 기념촬영

등의 놀이로 이루어졌다.

역할놀이 체험활동이 끝난 후 4세 000은 "결혼식 놀이를 할 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지만 가장 기억에 남아요."라고 말했다.

5세 000은 "아기를 돌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거예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경 원장은 "이번 역할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2023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실적 최우수교 선정

## 포항흥해공고, 탄탄한 학생 생활교육의 결실 맺어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실적 최우수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포함한 총 3차례에 걸친 심사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도내 초·중·고 중 9개 교를 선정하였다. 이 평가에서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가 최우수교로 최종 선정되어 학생 생활교육 분야의 명문 학교로 인정 받았다.

포항흥해공업고는 교과 수업 뿐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친구와 함께하는 낙동강 자전거 길 여행', '친구와 함께하

는 봉화 래프팅 체험', '글램핑 체험을 통한 힐링 캠프' 등의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화합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점이 돋보인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학교 폭력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최영호 교장은 "이번에 포항흥해공업고가 최우수교로 선정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생활교육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준/기자





## ‘추운 날씨에도 타오르는 꿈과 열정’ 의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 계절학교 운영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월) 10시부터 5일간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 계절학교’를 운영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계절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학 중 지속적인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응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동안 운영된다.

이번 겨울 계절학교는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공예 활동, 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겨울 계절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방학 중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좋아하는 커피



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요.”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성태동 교육지원과장은 “학생들이 방학 중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계절학교를 통해

장애 학생들에게는 연속적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와 보육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 ‘정들었던 학교 안녕! 새로운 출발의 시작!’ 봉화초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졸업식

봉화초등학교는 지난 4일(목), 봉화초강당에서 제109회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졸업식에는 4-5학년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6년간의 정들었던 초등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시간이 되었다.

재학생들의 댄스, 칼리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교장선생님의 졸업장 수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졸업을 축하하는 졸업생들의 과거 담임선생님들의 축하 영상과 재학생들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또한 졸업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담임선생님이 직접 만든 졸업생들의

6년 생활이 담긴 영상 시청에서는 졸업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웃음과 감동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 후 강당에 마련된 포토존과 졸업식장에서 담임선생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졸업의 축하와 아쉬움이 담긴 사진 촬영을 가졌다.

봉화초 장흥식 교장은 “그동안 자녀들을 사랑과 격려로 키워주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는 수고의 인사를, 졸업생들에게는 미래의 주역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과 용기를 가진 봉화초 졸업생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졸업 축하 인사를 전하였다.

윤근수/기자



## 청룡의 해, 용(龍)기운 가득한 ‘예천’으로

가족과 함께 예천 여행 어떠세요?

김학동 예천군수, “용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예천의 관광지들을 방문하셔서 용 기운을 듬뿍 받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밝히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집행률 제고 화상회의 개최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학교회계 집행률 제고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학교회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불용액 관리,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용예정액 반납 등의 방안을 공유하여 2023학년도 학교회계 집행목표율 98%의 달성을 도모하였다.

이호경 교육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 지원을 약속하며 학교의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2024년도 중학교 입학 본배정 추첨 배정 결과 발표

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금), 경산지역 31개 초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 예정자 총 2,265명의 본배정 추첨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중학교 입학예정자가 179명이 늘어났으며, 경산관내 2개의 중학교과 4개의 중학교에 지역 우선배정 및 체육특기, 다자녀,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등 선배정자 148명과 지방에 따른 2,117명의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9일(화) 15:00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개발한 NEIS기반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 추첨 배정을



진행한 결과이다.

경산교육청 이양군 교육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중학교 추첨 배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산지역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긴 시간 동안 자녀와 학생들을 위하여 애써주신 부모님과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였다.

김동현/기자

한국관광공사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2024년 1월 가볼 만한 곳’으로 예천군 회룡포를 선정하면서 회룡포와 함께 용의 기운 가득한 예천의 여러 여행지들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용이 휘감은 신비로운 마을, 회룡포 ▲육지의 용궁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간이역 용궁역과 테마공원 ▲청룡 두 마리가 왕건에게 절로 향하는 길을 안내했다는 용문사 ▲옛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 삼강문화단지 등은 겨울에도 아름다운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예천군 용궁면은 지명에 ‘용’이 들어간 고장 가운데 하나로 이곳에 있는 회룡포(명승)는 내성천이 산에 가로막혀 마을을 350° 휘감고 나가는 형상이 마치 용틀임하는 모습과 같아 회룡(回龍)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으며 천년고찰 장안사를 지나 회룡포 전망대에 오르면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회룡포 마을 안은 뽕뽕다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회룡포와 내성천을 미로로 표현한 회룡포미로미로공원이 눈길을 끈다. 회룡포는(가을동화)와 <해피선데이—1박 2일> 등의 촬영지로도 각광받는 관광지로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는 회룡포 봄꽃 축제도 개최한다.

또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소박한 간이역이었던 용궁역은 새롭게 단장되면서 용궁역 테마공원이 조성되었다. ‘별주부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오토마타(기계장치를 통해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 미디어아트 영상관, 12해신



조각상 등이 재미를 더한다.

특히, 용궁면은 순대가 유명한데, 전국 미식가들에게 사랑받는 용궁 순대 식당들이 즐비하며 순대외에도 연탄불 맛의 오징어불고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메뉴다. 아울러, 용궁면 내 식당 이용 영수증을 들고 용궁역 테마공원에 오면 금액별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룡 두 마리가 환하게 빛을 발하며 태조 왕건의 가는 길을 밝혀주었다는 전설을 가진 용문사는 대장전과 윤장대 등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체험등이 가능하고 세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보물 같은 관광지이다.

마지막으로, 삼강문화단지는 삼강주막, 강문화 전시관, 삼강나루 캠핑장, 생태공원 등이 조성된 가족형 문

화체험 관광지이다. 추석 연휴 동안 삼강나루터축제가 매년 열리며 온 가족이 전통문화체험과 문화예술공연을 경험하면서 삼강주막에서 파전, 막걸리를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참고로 예천 추천 여행코스는 ▲ 당일 여행 코스는 장안사→회룡대→회룡포마을→삼강문화 단지 코스, ▲1박 2일 여행 코스는 첫째 날은 회룡포→삼강주막→용궁 순대거리→용궁역 테마공원, 둘째 날은 금당실마을→초간정→용문사→소백산 하늘자락공원 코스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용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예천의 관광지들을 방문하셔서 용 기운을 듬뿍 받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2024년 새해에도  
청송군의회의회는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하며 섬기는  
청송군의의회  
CheongSong County Council

군민과 함께하는 청송군의의회, 정책을 실현하는 청송군의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cs.go.kr>



# 이순신의 도시 아산, 시민과 함께한 '노랑' 특별상영회 감동

### 박경귀 아산시장 "이순신의 도시 아산시, 장군 추모 당연해"

아산문화재단은 12일 기관단체장, 종친회, 어르신, 청소년들을 초청 '노랑: 죽음의 바다' 특별상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상영회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사 문화 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날 무대인사에서는 이순신 3부작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이 참석,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무대인사를 진행했다.

김한민 감독은 "17년간 이순신 시리즈 영화 제작을 통해, 청춘을 이순신 장군과 보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청년기를 보낸 아산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도시다"라면서 "영화의 감동을 통해 이순신 장군을 기리고 애도하는 시간이 될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산은 가족과 동료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풍전등화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송고한 희생을 하신 성웅 이순신 장군의 구국 정신이 서려 있는 도시다.

이순신 장군이 유년기부터 청년기를 보낸 생가터와 장군의 영정을 모신 현충사(염치읍)가 있으며, 노랑에서 전사한

장군과 그의 부인 방씨가 영면해 계신 묘소(음봉면 어라산)가 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아산시 인주면에는 백의종군길에 올랐던 장군을 만나기 위해 전남 수군 군영에서 배를 타고 북상 중 임종한 어머니의 시신을 맞이한 계바위가 있다. 또 현충사 내에는 이순신 장군의 가족을 죽이기 위해 침입한 왜군에 맞서 싸우다 21살의 나이로 전사한 장군의 셋째 아들 이면 공의 묘소가 있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고, 영면해 계신 영원한 이순신의 도시다. 지난해 오직 이순신 장군의 콘셉트만을 담은 '성웅이순신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했고, 순국제전을 통해 409년 만에 국장에 버금가는 예장으로 모셔 이순신의 도시로서 도리를 할 수 있었다"며 "이순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아산시민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아산문화재단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 불세출의 영웅으로서 면모뿐만 아니라 한집안의 아들, 남편, 아버지로서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지속적으로 발굴·선양한다는 계획이다.



김현호/기자

# 광양매화축제, '우수' 등급으로 '2024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정 쾌거

### 도비 3천만원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24~' 25 예비 문화관광축제 도전 기회 열려

대한민국 축제의 서막을 여는 광양매화축제가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와 축제 조직 운영 역량, 개최 효과 등을 인정받아 2024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2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정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24~' 25년 예비 문화관광축제 도전의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2024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는 등급 없이 10개 대표축제를 지정했던 이전 방식과 달리, 축제장 현장 평가와 전년도 실적 및 올해 계획 등 발표 심사 평가를 거쳐 최우수(1개), 우수(3개), 유망(6개) 3등급으로 구분하여 총 10개의 축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상위 3개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추천된다.

또한, 10개 대표축제에 2천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했던 도비도 최우수, 우

수, 유망 등 등급에 따라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을 각각 차등 지원된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 지정 쾌거와 함께 우수 축제로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고 문체부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추천받게 됐다.

광양시는 '광양매화, K-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3월 8일부터 열흘간 개최 예정인 '제23회 광양매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지향해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와 친환경적이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도' 대표축제 품격을 높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관광축제에도 당당히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광양매화축제는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설렘을 선사하며 전라남도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

는 정체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제23회 광양매화축제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층 품격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관광수용태세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기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승준/기자



#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 얼음 낚시터 개장으로 축제 분위기 고조

### 1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홍천강 둔치주차장 일원에서 개최

지난 5일 시작된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의 메인프로그램인 얼음낚시터가 9일부터 정상 운영되면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얼음낚시터 개방 소식에 전국의 강태공들과 관광객들은 인삼송어의 손맛을 보기 위해 축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개막을 앞두고 높은 기온으로 인해 얼음 결빙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온난화를 대비한 가족 실내낚시터, 루어 및 부교 낚시터를 운영해 왔으며, 9일부터 기상여건이 좋아지면서 얼음낚시터가 개장하는 등 모든 프로그램이 정

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얼음낚시터는 현재 안전을 위해 낚시터 얼음 구멍 간격을 4m로 늘렸으며, 안전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 더 늘릴 예정이다. 또한 흑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평일에는 40여명, 주말에는 6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얼음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재)홍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홍천강공공축제는 6년근 인삼이 배합된 사료를 먹인 인삼송어를 활용하여 여타 유사 축제와 차별화 되고 있다. 인삼송어를 낚는 손맛은 물론 입맛과 영양가

지 챙길 수 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송어 얼음낚시를 비롯한 루어낚시터, 부교낚시터, 맨손인삼 송어잡기, 가족실내 낚시터, 무료 민속얼음 썰매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홍보부스와 체험부수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인삼'과 '송어'의 특별한 만남, 제12회 홍천강공공축제는 홍천강 둔치주차장 일원에서 1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열린다.

이세나/기자



# 2024 UIAA청송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리드,스피드)

### 윤경희 청송군수,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와 관중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겨울 산악스포츠의 맹주 '청송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지난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제산악연맹(UIAA)과 (사)대한산악연맹(KAF)이 주최하고 청송군과 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2024 UIAA 청송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리드,스피드)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12일, 청송예술문화회관에서 대회의 개최를 알린후 13, 14일 양일간 대회가 펼쳐지며, 이번 대회는 아이스클라이밍 리드, 스피드 2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12일(금)에는 선수등록, 테크니컬 미팅과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개회식을 개최했으며, ▲13일(토)에는 원업 구역 오픈, 루트 시연, 남녀 리드예선, 스피드 남녀 연습 및 남녀예선과 스피드 남녀 결승경기가 열렸다. ▲마지막 날인 14일(일)에는 격리구역오픈 및

마감, 리드 남녀 준결승, 격리구역오픈 및 마감, 루트 세팅, 선수소개 및 루트 파인딩, 리드 남녀결승, 시상식, 환송 만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세계 톱 랭커들이 대거 참여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스피드 종목의 세계랭킹 2위인 양영욱과 리드 종목의 세계랭킹 3위인 신운선 등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게 되며, 이번 대회 시상은 총상금 18,600유로로. 2개 종목인 남녀리드, 남녀스피드 별로 각각 1위~6위까지 주어진다.

취재진은 대회 2일차인 리드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 봤다. 2~3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참여해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대회장 주변에 얼음 공예 조각으로 포인트 존을 연출했다.

특히 대회장에는 청송백자전시와 관광사진전, 청송사과 무료 시식 코너를 마련해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오가며 입맛을 즐겨 청송사과의 맛을 전세계에

각인 시켰으며, 대회참가자와 관광객들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갖췄다.


이날, 리드 경기진행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 직전, 사회자의 격려 멘트와 관광객들의 뜨거운 연호와 박수로 목표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였고, 실패했을때에도 관광객들은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와 환성을 보내 대회 참가자들의 경기 진행에 대해 힘찬 격려를 아끼지 않은 등 선수와 관광객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에서 진정한 스포츠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011년부터 개최 온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자연경관과 스포츠 종목을 연계한 종목 특화로 국제대회 브랜드화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와 관중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대회를 치루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충만 관광문화




시민행복 맞춤형



인재양성 미래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



목포시



# 2025 APEC 정상회의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합니다

세계적인 행사가 가능한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입니다

클린에너지 중심 첨단산업도시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합니다

초대된 정상과 대표단을 위한  
최적의 경호·안전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포용적 성장과  
지방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입니다.

